

經濟成長의 理論에 關한 研究

夫 鍾 哲*

目 次

- | | |
|-------------------------|--------------|
| I. 序 論 | IV. 新古典派的 綜合 |
| II. R.F.Harrod의 經濟成長 理論 | V. 結 論 |
| III. 新古典派的 經濟成長 理論 | |

I. 序 論

經濟成長의 理論이 지금까지 主로 分析의 對象이 된 것은 現代의 資本主義經濟가 얼마큼 安定的인 成長過程을 持續할 수 있느냐 또는 그것이 可能하다면 그 때의 經濟全體로서의 成長率을 決定하는 要因은 무엇이나라는 問題인 것이다.

經濟의 成長은 말할 必要없이 生産諸要素의 量的擴大와 그런 生産要素를 結合해서 生産物을 만들어내는 生産技術의 進歩에 依해 可能하기 때문에 生産諸要素의 擴大率 또는 技術進歩率을 決定하는 經濟的 要因의 解明, 特히 經濟體系的 內部에서 再生産 可能한 生産要素 即 資本財의 增加率을 決定하는 要因을 明確하게 하는 것이 經濟成長理論의 첫째 課題가 된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生産能力의 擴大와 步調를 맞추어서 總需要가 成長을 持續하기 위한 條件을 明確히 하는 것이 經濟成長理論의 또 하나의 重要한 課題가 된다.

市場經濟를 前提로 하는 限 아무리 生産能力이 擴大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對應할 수 있는 需要가 없어서는 生産諸要素는 利用되지 않고 遊休하게 되어 經濟成長은 畫餅에 不過하게 된다.

第二次大戰의 前後을 通해서 눈부시게 進歩해온 經濟成長 理論의 分野에서 主로 巨視的成長理論의 代表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R.F.Harrod의 成長理論과 新古典派的 成長理論 두가지를 對象으

* 社會科學大學 敎授

로 하여 그 骨格을 明確히 하고 對立되는 두 理論을 現代의 經濟成長을 理解하는데 軸점을 두고 자 한다.

II. Harrod의 經濟成長理論

1. 均衡產出量의 決定

企業家 전체가 資本設備을 年 g 率로 增加시킬려는 생각이 있다고 假定하자. 期初에 存在한 資本設備의 量을 K 로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gK 만의 新資本財에 대한 需要로서 生産物市場에 나타난다. 반면에 消費者 전체는 所得의 一定 비율 s 率을 貯蓄하고 殘額을 消費한다고 假定하자. 國民所得(國民總生産)을 Y 로 한다면 當期의 生産物市場의 需給均衡條件은

$$gk + (1-s)Y = Y \quad (1)$$

로 나타나고 지금부터 當期의 均衡 生産量은

$$Y = \frac{g}{s} k \quad (2)$$

가 된다.

이만한 生産物을 生産하는데 勞働力이 얼마만큼 必要한 것인가. 生産技術이 끊임없이 進歩할 경우에는 다른 經濟的條件이 동일하다고 해도 生産物 1單位當의 勞働必要量은 時間의 경과와 함께 減少할 것이다. 技術進歩의 問題를 一般的으로 取扱하게 되면 論議가 複雜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單純한 型의 技術進歩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生産技術進歩가 經濟外的 要因에 의해 원래의 一定한 勞働力을 그 一定倍數의 勞働力과 같은 生産力을 갖게 하는 形態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特定한 時點에서의 勞働力 1單位를 基準으로 해서 現在의 勞働力이 基準時點의 그것의 몇배가 되느냐에 따라 技術進歩의 速度가 測定되는 것이다. 이런 換算率을 勞働效率指數라고 한다면 技術進歩는 勞働效率指數의 成長率에 따라 나타날 것이다.

生産量 1單位當에 必要한 效率單位의 勞働量이 一定하다고 假定해서 이것을 L 로 표시한다. 當期의 勞働雇傭量을 N , 勞働效率指數를 A 로 한다면 (2)式에서 決定된 產出量을 生産하기 위해 必要한 雇傭量은

$$N = L \frac{Y}{A} = \frac{Lg}{s} \frac{k}{A} \quad (3)$$

가 된다.

그래서 이 勞働需要量과 當期の 勞働供給量을 比較하면 當期の 雇傭量을 알 수 있다. 물론 雇傭量은 勞働供給量을 超過할 수 없기 때문에 短期的으로 주어진 勞働供給量을 完全히 雇傭하는 生産可能한 最大生産量이 존재할 것이다. 만약 有效需要가 이 水準을 超過하면 物價가 上昇하여 實質需要가 이 產出量까지 減少하던지 아니면 需要의 一部가 充足되지 않는 狀態에서 放置될 것이다.

2. 適正成長經路

以上에서 決定된 均衡產出量에 對한 現存 資本設備의 比率은 資本係數 또는 資本·產出高比率 이라고 한다. 그러나 現實의 資本係數가 企業家의 期初의 生産計劃에서 豫定되어진 바람직한 資本係數와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을 것이다.

當期の 有效需要의 水準은 現存 資本設備을 적절히 稼動해서 生産되는 水準보다도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종 現實의 資本係數가 企業家가 適正이라고 생각하는 數値와 一致하고 있다면 다른 條件이 變化하지 않는 限 企業家는 最初에 決定한 資本設備의 成長率을 變更시킬 誘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企業家는 期初의 資本設備의 擴大率로 投資를 한 結果 當期の 經濟活動은 그 意思決定을 充足시켰기 때문에 生産活動에 比해서 資本의 擴大率이 過大도 過少도 아니었다고 判斷하여 次期에도 같은 率로 資本設備을 增加시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次期の 投資量은 當期和 比較하여 資本設備의 成長率과 같은 比率로 증가하기 때문에 次期에 있어서 (2)의 關係를 成立시키는 均衡產出量도 그것과 같은 比率로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次期에 있어서 現實의 資本係數도 當期和 같이 企業家가 適正이라 생각되는 크기와 동일하게 되는 것을 意味할 것이다. 이와 같이 現實의 資本係數(k/Y)가 適正資本係數(c)와 같다면 동일한 成長過程이 反復하게 되어 經濟는 다른 條件이 변하지 않는 한 一定率로 成長을 持續할 것이다.

「해롯드」는 이러한 成長率을 適正成長率이라 하였다. 適正成長의 過程에서는 資本設備, 產出量, 勞働雇傭量等은 모두 동일한 比率로 成長하게 되는 것이다.

3. 自然成長經路

企業家의 投資行動을 생각치 말고 市場에 供給되는 勞働量이 完全히 雇傭되는 成長經路를 생각하여 보자.

勞働供給量은 經濟外的인 理由로 年 n 率로 成長한다 보고, 또 科學知識의 發展과 그 應用面에서의 進歩나 經營管理技術의 改善等に 依해 勞働力 1單位の 效率이 年 a 率로 높아진다고 假定하여 보자. 그러면 效率單位の 勞働力은 年 $(n+a)$ 率로 成長하게 된다. 時間을 t . 또 期初($t=0$)에서의 勞働供給量을 L_0 로 한다면 完全雇傭을 維持시킬 수 있는 產出量の 指數的 成長經路는

$$Y = \frac{1}{L} L_0 e^{(n+a)t} \quad (4)$$

로 나타난다.

이러한 成長經路를 自然成長經路라고 부르기도 한다. 產出高의 自然成長率은 $n+a$ 이다.

自然成長經路라 해도 經濟가 자연히 이러한 成長經路에 따라 成長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와 같이 企業家의 投資行動을 前提로 한다면 經濟自體가 갖는 運動法則에 따라 自然成長이 實現되려면 다음 두가지의 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① 自然成長率($n+a$)과 適正成長率(s/c)이 같아야 한다. ② 期初에서 完全雇傭이어야 한다.

이러한 條件은 「해롯드」體系에서는 極히 不充分하다. 첫째 企業家의 投資意欲이 期初에서 完全雇傭을 꼭 達成할 수 있는 有效需要의 水準을 實現한다는 保障은 없다. 또 이러한 條件이 充足된다해도 ①의 條件을 充足한다는 것은 더 한층 困難한 것이다. 이것은 각각 別個의 要因에 따라 決定되는 n, a, c, s 등의 數値가 ①의 關係를 充足한다는 것은 우연한 경우이다.

만약 自然成長率이 適正成長率보다 크다고 하면 自然成長經路를 따르는 經濟는 항상 成長率을 높힐려고 하여 慢性的인 「인프레」傾向이 나타날 것이고 逆으로 適正成長率이 自然成長率보다 크다고 하면 自然成長經路를 따르는 經濟는 항상 成長率을 低下시켜 慢性的 「디프레」傾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롯드」的인 成長理論에서는 完全雇傭을 維持하면서 經濟가 一定率로 成長을 持續한다는 可能性은 極히 嚴格한 條件下에서만 存在하고 만약 存在한다 해도 일단 그 經路를 벗어나면 經濟는 다시 그 經路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意味에서 이러한 成長經路는 不安定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新古典派의 經濟成長理論

「해롯드」의 成長理論이 1930年代의 世界的 大恐慌을 背景으로 한 케인즈(J.M.Keynes) 經濟學의 動學化를 意圖한데 반해 第二次大戰後의 急速한 回復과 持續的인 經濟의 擴大中에 發展해온 所謂 新古典派成長理論이 추구하는 것은 完全雇傭을 持續시킬 수 있는 經濟가 가지고 있는 長期的인 經濟成長經路의 諸特性을 明確히 하는 것이었다.

R. M. Solow, T. W. Swan, J. E. Meade 등에 의해 研究되어온 新古典派成長理論의 特徵은 價格 伸縮性和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生産要素間의 自由로운 代替 可能性을 認定하는데에 「해롯드」的인 體系가 갖는 여러가지의 硬直性を 除去하고 있는 것이다.

1. 生産函數

新古典派 成長理論에서 中心的인 役割을 하는 것은 生産要素의 投入量과 產出量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生産函數의 概念이다. 生産要素를 資本設備과 勞働力 두가지로 限定하여 土地(自然資源)의 役割을 無視한다고 한다면 生産函數는 資本設備과 勞働力의 여러가지 投入量에 對應하는 產出量을 나타낸다. 資本設備과 效率單位로 測定한 勞働의 投入量을 모두 一定倍數만큼 增加하

였을 때 產出量도 같은 率로 增加한다고 假定한다면 資本設備과 產出量은 모두 같은 率로 增加하므로 그 比率는 變化하지 않는다는 것이 明確하다. 이러한 假定下에서의 資本係數는 資本設備과 效率單位로 測定한 勞働量과의 比率만으로 決定되는 것이다.

또 어느 쪽의 生産要素(例 勞働)의 量을 一定하게 維持하여 다른 生産要素(資本)의 量을 增加하면 收穫遞減의 法則에 따라 增加된 生産要素의 平均生産性은 低下한다. 卽 資本係數는 增大된다.

一般的으로 生産要素間的 代替가 可能하다면 資本·勞働比率이 높으면 資本係數는 增加할 것이고 그에 따라 資本의 限界生産性은 低下되고 勞働의 限界生産性은 上昇할 것이다.

2. 完全雇傭 成長經路

資本과 勞働間的 代替가 廣範圍하게 可能하고 그와 同時에 生産要素의 價格이 매우 伸縮的이라고 하면 每期에 있어서 現存의 資本設備가 모두 利用되어 또 供給된 勞働力이 完全히 雇傭되는 點에서 生産이 이루어질 것이다. 卽 均衡產出量은 有效需要의 水準에 따르지 않고 生産要素의 供給量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現存의 資本設備과 勞働供給量을 合쳐 生産된 完全雇傭產出量中 消費되지 않는 部分이 반드시 새로운 資本設備의 追加가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社會의 平均貯蓄性向(s)이 一定하다고 假定한다면 이 關係는

$$sY = gk \quad (5)$$

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어진 當期의 資本設備量(k)과 完全雇傭產出量(Y)에서 當期의 資本蓄積率(g)이 決定되는 것이다. 當期의 資本蓄積率이 決定된다면 次期의 資本設備量도 決定되기 때문 똑같은 過程을 거쳐 經濟는 完全雇傭 成長經路를 따르게 될 것이다.

3. 定常成長經路

以上과 같이 每期에 決定되는 資本成長率의 크기는 그 期의 資本係數의 크기에 따라 반드시 每期같은 數値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g의 數値가 勞働人口의 成長率(n)과 技術進步率(a)의 合과 같을 때는 每期의 成長率이 언제나 이런 一定의 數値로 經濟成長 過程이 進行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效率單位로 測定한 勞働力과 資本設備가 똑 같은 率로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資本·勞働比率를 變하지 않고 資本係數도 一定하게 停止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成長經路上에서는 效率單位로 測定한 勞働의 限界生産性은 一定하고 實際의 勞働 1人當의 實質 賃金率은 (a)率로 成長한다.

勞働人口의 成長率은 n이기 때문에 賃金總額의 成長率은 n+a이다. 이것은 產出量의 成長率과 같다. 따라서 所得分配率도 一定하다.

이러한 成長經路를 定常成長經路로 불리우는 것은 이 成長經路上에서는 모든 經濟變量의 成長率이 一定不變하기 때문이다.

定常成長經路上에서는

$$\frac{k}{Y} = \frac{s}{n+a} \quad (6)$$

이러한 關係가 成立되어야 하지만 要素間의 代替가 廣範圍함으로써 可能하며 資本係數(k/Y)도 廣範圍한 數値를 얻을 수 있다면 주어진 s,n,a의 數値에 대해 (6)式의 關係를 成立시키는 定常成長經路는 存在할 것이다.

4. 定常成長經路의 安定性

現實의 資本成長率 g가 定常成長率 n+a와 동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g쪽이 n+a보다 크다고 假定하여 보자. 資本設備의 成長率이 效率單位로 測定한 勞働의 成長率보다 높기 때문에 次期の 資本·勞働比率는 當期보다 높아진다. 이것은 次期の 資本係數가 當期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次期の 資本設備의 成長率은 當期보다 低下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g가 n+a를 上廻하는 限 上記의 理由로서 g의 數値는 每期마다 低下되어 充分한 時間이 經過하면 g의 數値와 n+a는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新古典派成長理論의 定常成長經路는 그 經路에서 벗어난 初期狀態에서 出發해도 經濟가 언제나 그 經路에 近接된다는 意味에서 가장 安定的이라 할 수 있다.

「해롤드」成長理論에서의 適正成長經路의 不安全性과 新古典派成長理論에서의 定常成長經路의 確實한 安定性은 對照的이라 할 수 있지만 兩者의 差異는 말할 必要도 없이 經濟를 모델化할 때의 基本的인 諸前提條件의 差異에도 基因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두가지의 成長理論의 가장 特徵的인 部分을 同時에 包含하는 經濟모델을 構成하여 하나의 總合的인 觀點에서 經濟成長을 理解하여 보기로 한다.

IV. 新古典派的 綜合

新古典派 成長理論의 하나의 問題點은 그것이 完全雇傭經濟를 論議의 出發點으로 選擇했기 때문에 資本主義經濟의 循環을 決定하는 하나의 重要한 要素인 企業家의 投資意思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經濟에서는 完全雇傭所得에서 이루어지는 貯蓄은 반드시 資本設備의 追加로 되어 企業家は 每期의 資本設備의 量을 받아 그것을 如何히 效率的으로 利用하느냐를 決定하는 主體로서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모델의 結論을 直接 「해롤드」成長理論과 比較함은 별다른 意味가 없고 오히려

企業家の 自由스러운 行動에 立임하는 경우에 經濟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는 「해롯드」가 設定한 問題에서 出發하여 또 完全雇傭의 어떠한 機構下에서 維持되느냐를 分明히 한 다음 처음으로 兩理論의 意義가 明確하게 評價될 것이다.

1. 適正成長經路와 利潤率

完全한 價格伸縮性에 따라 언제나 完全雇傭이 이루어진다는 假定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均衡產出量이 결정되어진 것처럼 每期의 均衡產出量은 有效需要의 水準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即 企業家の 投資意欲이 주어진다 則 均衡產出量은 當期의 投資量과 經濟全體의 貯蓄量이 동일하게 될때 決定되어지는 것이다.

現存의 資本設備를 가지고 이만한 產出量을 生産하기 위해 必要한 勞働量은 生産函數에서 얻어진다. 이렇게 決定된 雇傭量이 當期의 勞働供給量과 같다는 保障은 없는 것이다.

當期의 產出量이 決定되면 그와 同時에 現實의 資本係數의 크기도 決定되어 거기에 對應하는 資本의 限界生産性도 決定된다. 經濟全體가 單一의 生産物을 生産하여 그것을 消費財나 投資財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巨視的인 論議의 경우에는 資本의 限界生産性과 資本利潤率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均衡產出量의 決定에 따라 當期의 利潤率도 決定되는 것이다. 生産函數에서 본것처럼 資本係數가 높아지면 資本의 限界生産性(利潤率)은 低下하는 것처럼 兩者는 逆方向으로 變化하기 때문에 當期의 利潤率은 有效需要의 水準이 높고 資本係數가 低下한 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決定된 利潤率은 企業家가 適正利潤으로 생각하는것 보다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 利潤率이 가끔 適正利潤과 一致한다면 企業家는 期初의 投資意思決定을 變更시키지 않고 次期에도 같은 率로 資本設備를 擴大할 것이다. 每期 g 의 數值가 같다면 資本係數의 數値는 변하지 않으며 利潤率도 一定하게 停止하여 이러한 成長過程은 持續될 것이다.

이것은 「해롯드」 成長理論의 適正成長經路와 本質의 으로 같은 成長過程이고 「해롯드」가 適正資本係數와 現實의 資本係數와의 相違에 따라 企業家の 投資行動을 說明한데 對해 여기에서는 그것이 利潤率의 概念에 달리 이야기된 點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生産過程에서의 生産要素間의 代替가 認定된다면 利潤率과 資本係數 사이에는 一定한 關係가 存在하기 때문에 適正利潤率이 變化한다면 適正資本係數도 變化한다. 따라서 適正成長經路를 벗어난 經濟의 움직임을 알려면 企業家の 適正利潤率을 決定하는 要因을 明確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2. 物價水準의 움직임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의 物價水準의 變動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勞働市場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超完全雇傭과 같은 特別한 경우 外에는 物價水準의 變動은 貨幣賃金率의 變動에 따라 強하게 左右되기 때문이다. 現代의 經濟에서는 貨幣賃金率을 完全雇傭이나 物價安定이라는

經濟體系의 要請에 따라 變化하는 것이 아니라 獨自의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貨幣賃金率을 外生的인 要因에 따라 決定되는 變數로 생각하면 된다. 貨幣賃金의 上昇率은 失業率의 變化에 따라 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 例를 들어 失業率이 減少하여 經濟가 完全雇傭에 가까울 수록 貨幣賃金의 上昇率은 높아지고 逆으로 失業率이 높아지면 貨幣賃金의 上昇率은 鈍化되어 失業率이 어느 水準을 넘으면 貨幣賃金率은 絶對的으로 低下한다는 關係가 있을 수 있다. 實質賃金率은 生産의 技術水準과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勞働과 結合되는 資本設備의 量에 따라 決定된다. 物價水準은 貨幣賃金率을 實質賃金率로 나눈 것으로 그 上昇率은 貨幣賃金의 上昇率에서 實質賃金의 上昇率을 뺀 數値와 같게 된다. 資本·勞働比率이 一定하다면 效率單位로 測定한 勞働의 限界生産性を 一定하다. 그러나 勞働의 效率指數는 技術進步의 結果 一定하게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實際의 勞働力一單位의 實質賃金率은 동일한 比率로 上昇할 것이다. 資本·勞働比率이 一定한 때는 實質賃金의 上昇率은 技術進步率과 같은 것이다.

만일 資本·勞働比率이 每期에 上昇한다면 效率單位로 測定한 勞働의 限界生産性도 每期 上昇함으로써 實質賃金率은 앞에서 보다 高率로 上昇할 것이다. 逆으로 資本·勞働比率이 每期에 低下된다면 實質賃金의 上昇은 技術進步率보다도 低下될 것이다. 以上の 結果를 綜合한다면 成長過程에 있어서 物價水準의 움직임을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資本係數가 每期 一定하게 維持되는 成長過程에서는 物價水準의 上昇率은 貨幣賃金의 上昇率에서 技術進步率을 차감한 數値와 같아진다. 資本係數가 언제나 높아지는 成長過程에서는 技術進步 外로 勞働力 1單位當의 資本設備量의 增加에 따라서도 實質賃金率은 높아지기 때문에 物價의 上昇率은 自然上昇率 보다 低下되어 逆으로 資本係數가 언제나 低下되는 成長過程에서의 物價水準은 自然上昇率보다 高率로 上昇할 것이다.

3. 自然成長의 維持

經濟가 自然成長 經路上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狀態가 維持되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經濟가 自然成長 經路上에 있다고 한다면 資本係數나 利潤率도 一定하고 物價水準은 自然上昇率로 上昇한다. 市場利率이 資本利潤率과 物價의 上昇率과의 和과 같은 水準으로 維持되면 適正利潤率과 現實의 利潤率이 一致가 되어 自然成長의 過程은 維持될 것이다. 그러나 市場利率이 下落할 수 있는 最下限線이 있어 現實의 利潤率과 物價水準의 自然上昇率과의 和이 그 以下이면 貨幣供給을 아무리 增加시켜도 市場利率을 必要한 水準까지 低下시킬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除外한다면 中央銀行이 貨幣供給量을 適切히 管理함으로써 市場利率은 위와 같은 水準으로 維持될 것이다. 貨幣에 대한 需要는 利率만이 아니라 名目國民所得의 水準에도 依存하기 때문에 所得이 增加할 때에는 利率을 이 水準으로 維持하기 위해서는 貨幣供給量도 適切한 率로 增加시켜야 할 것이다. 名目國民所得에 대한 貨幣需要의 彈性성은 貨幣供給量과 名目國民所得의 增加率과 같은 率로 增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資本利潤率이 適正利潤率과 一致한다면 資本設備의 增加率과 自然成長率이 같은 水準으로 維持되어 產出量도 같은 率로 지속적으로 增加하게 된다. 民間投資 또는 民間消費가 自然成長率로 增加하기 때문에 均衡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財政支出도 같은 率로 增加해야 할 것이다.

4. 自然成長에의 調整過程

任意的 初期狀態에서 出發해서 經濟를 自然成長經路에 到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重要한 問題가 남아 있다. 以下에서는 財政政策의 運營에 따라 每期 完全雇傭이 達成되고 또 市場利率이 最下限線 근처까지 低下하지 않는 經濟를 念頭に 두어 論議하기로 한다.

各期の 資本利潤率은 그 期の 資本·勞働比率의 高低에 따라 決定되지만 任意的 狀態에서 出發한다고 하면 그것이 適正利潤率과 一致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貨幣當局은 每期의 資本利潤率과 物價의 自然上昇率의 合과 같은 水準으로 市場利率이 決定되도록 每期의 貨幣의 供給量을 決定한다고 하자. 이것은 現實의 利潤率과 適正利潤率을 每期마다 동일하게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上記의 方法을 擇함으로써 經濟를 自然成長經路에 到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음에서 證明할 수 있다.

完全雇傭이 每期 維持된다고 假定하여 資本設備의 增加率이 自然成長率보다 低下된다면 資本·勞働比率은 低下되고 資本係數도 低下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物價의 上昇率은 自然上昇率보다 높을 것이다. 利率이 위와 같은 方法에 따라 決定되었다면 現實의 利潤率이 適正利潤率을 超過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따라서 企業家は 資本設備의 增加率을 增大시켜 나아갈 것이다.

逆으로 出發點에 있어서 資本設備의 增加率이 自然成長率을 超過해 있다면 위와 같은 政策에 따른다면 資本設備의 增加率은 鈍化될 것이다. 이러한 調整過程을 지나서 資本設備의 增加率이 自然成長率과 同一하게 된 後에 物價水準의 上昇率은 自然上昇率과 同等해지고 現實의 利潤率은 適正利潤率과 一致된다. 이 후에는 利率을 그 水準에 到達하게끔 貨幣供給量을 增大시켜 財政支出을 自然成長率로 增加시키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注意해야 할 點은 利率을 完全雇傭利潤率과 物價의 自然上昇率과의 合과 同等한 水準으로 固定시켜 財政支出을 自然成長率로 增加시키는 政策을 어디까지나 經濟가 自然成長經路에 到達한 後에 그것을 維持하기 위한 것으로 그 以外の 狀況下에서 이 政策을 固執한다는 것은 오히려 有害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自然成長經路를 따르는 經濟가 어떤 時點에서 어떤 理由로 인해 投資意慾의 減退를 招來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財政支出이 從來와 같은 率로 增加되었다고 한다면 民間投資需要의 增加率의 低下에 따라 有效需要는 完全雇傭產出量에 알맞게 크지는 않고 資本係數는 上昇할 것이다. 現實의 利潤率은 低下되고 物價水準은 以前보다는 低率로 上昇한다. 이럴때 利率이 지금까지의 水準에 固定되어 있다면 企業家の 適正利潤率은 上昇하고 次期の 投資意慾은 當期보다도 더욱 減退하여 累積過程이 始作될 것이다. 硬直性에 따라 생기는 經濟의 不安定性을 克服하려면 公共政策自體가 硬直的이서는 안 된다.

V. 結 論

現代의 資本主義經濟에서 經濟成長의 原動力인 資本蓄積率을 決定하는 主體는 企業家인 것이다. 現在 貨幣賃金率이나 市場利率等의 生産要素價格이 伸縮的으로 變化해서 生産諸要素의 完全雇傭이 達成되고 또 經濟가 安定的인 成長過程을 自動的으로 達成할 것이라고 期待하기는 어렵다. 企業家가 利潤動機에서 바람직하게 判斷되는 經濟成長의 過程은 經濟에 存在하는 모든 生産要素를 完全히 利用하면서 成長한다는 過程과는 다른 것이다.

「해롤드」成長理論의 中心命題는 企業家の 自由스러운 行動에서 決定되는 經濟成長經路가 上向 또는 下向의 一方的인 成長率의 變化를 包含하는 極히 不安定한 것이라 했다.

新古典派의 成長理論은, 만약 完全雇傭이 언제나 維持하게끔 企業家の 投資意欲이 自動的으로 調節이 된다면, 經濟의 모든 變數들이 一定한 增加率로 계속 成長하는 定常成長過程을 現實의 企業家の 投資行動과 앞에서의 假定과 어떻게 兩立하는가를 明確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現代의 資本主義經濟는 市場經濟인 同時에 公共部門의 광범위한 活動을 包含하는 混合經濟인 것이다. 企業家の 投資行動이 「해롤드」理論처럼 不安定性을 갖는다 할지라도 財政·金融政策이 適切히 運營된다면 經濟를 新古典派理論처럼 定常成長經路로 誘導하는 것도 可能할 것이다. 新古典派理論의 여러 結論은 이러한 可能性을 前提로 해서 처음으로 正當하게 評價될 것으로 생각한다.

Summary

A Study o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Boo Jong-chul

Because the economy grows by means of the expansion of productive factors and the evolution of productive technology, the study on economic factors which determine the expansion rate of productive factors or the rate of technical evolution, especially to clarify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determine the growth rate of capital goods, reproducatable productive factors in the economic system, is the task of the theory of growth.

After I studied the framework of R. F. Harrod's economic Growth Theory and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thoroughly, I put emphasi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modern economic growth by means of the synthesis of two economic growth theory.